

# 보성군, 제8회 벌교갯벌 레저벨배대회 5월 6일 개최

## ‘바다의 보고, 벌교갯벌에서 답을 찾다’ 주제 참가비 전액 무료...벨배어업 문화 저변확대

보성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보성 벌교갯벌에서 5월 6일(토)에 제8회 벌교갯벌 레저벨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벌교갯벌 레저벨배대회’는 2023년 보성세계자연유산포(2023. 4. 29.-5. 7.) 통합 축제 기간 중 개최된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인 보성 벨배어업을 활용한 해양 레저 스포츠 대회로 2010년부터 청정 벌교 갯벌에서 열리는 유일무이한 갯벌레포츠 대회이다.

이번 벨배 대회는 벌교읍 장양어촌체험마을에서 진행하며 메인 행사인 레저벨배대회 외에 전문가부 벨배 대회와 부대행사인 갯벌 풋살 대회, 청소년 머드 댄스 경연대회, 짬뽕어, 칠게, 꼬막 등 갯벌 생물 잡기, 갯벌 보물찾기, 벨배 무드등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대회 참가는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보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추진위원회(061-857-7676) 전화 신청과 행사 당일 10시부터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누구나 부담 없이 대회 참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승자는 푸짐한 시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회 시상금은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레저벨배대회 △초등부 저학년과 고학년부는 1등 10만 원/ 2등 7만 원/ 3등 5만 원이며, △중등부와 고등부는 남, 여로 구분하여 1등 20만 원/ 2등 15만 원/ 3등 10만 원이다. △대학일반부 남, 여와 다문화가정은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3등 10만 원이며, △전문가부는 1등 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 원이다.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갯벌 풋살대회는 1등 팀 50만 원/ 2등 팀 30만 원/ 3등 팀 20만 원이며 참가 팀 모두 참가상이 있다.

청소년 머드 댄스 경연대회는 1등 팀 70만 원/ 2등 팀 50만 원/ 3등 30만 원과 함께 참가상이 있다. 또한, 갯벌 보물찾기와 갯벌 생물 잡기도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다.

한편, 보성군 ‘벨배어업’은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로 관리되고 있다. 보성군은 벨배를 레포츠 장비로 개발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갯벌 체험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 본격 가동

여수시는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 실천본부’가 12일 오후 여수문화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르네상스 시민운동 실천본부’는 시민의 힘으로 여수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직능·사회단체 회원, 봉사자 등 27개 읍면동 실천본부 900여 명의 시민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6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아름다운 섬섬여수 바꾸기 ▲지속가능한 여수 조성 등 3대 핵심과제를 실천한다.

이를 위해 매월 중점 실천의 날을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섬박람회 범시민 홍보활동, 친절·질서·청결·봉사운동, 마을환경 바꾸기, 자원리사이클 운동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300여 명의 읍면동 실천본부 위원들이 참석해 결의문 낭독, 실천기 전달, 시민운동 실천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시민운동 성공 결의를 다졌다.

여수=김현근 기자



## 고흥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강화유리 설치

고흥군은 군청과 읍·면(소록출장소 포함) 민원실 민원창구 18개소에 민원인의 물리적 충격, 위협물 투척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강화유리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원창구 안전 강화유리는 기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한 이동식 아크릴 가림막보다 외부충격에 강한 강화유리로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구축해 민원창구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이밖에도 고흥군은 직원과 민원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블캠) 배부 ▲특이민원 대응팀 구성 및 모의훈련 실시 ▲CCTV와 비상벨 설치 ▲녹음전화 및 음성보호 시스템 구축 ▲청원경찰 민원실 순찰 ▲AI로봇 청정 소독 실시 ▲소통과 배려의 공간 ‘윤주담’ 설치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여기 오면 인생사진 거뜬하다고?...사진 명소 끝판왕 2023정원박람회

###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포토 스팟 추천’ 방문 인증 사진 가득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개막 2주차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관람객 90만 명을 넘어서며 전국 상춘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해시태그와 함께 ‘포토 스팟 추천’이라며 박람회 방문을 인증하는 사진들로 가득하다.

특히 잘 나온 사진 한 장만으로도 MZ세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시대, 2023정원박람회는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포토존을 선사하고 있어 “엄청난 꽃들, 날씨가 좋아서 어디서 찍어도 인생사진 건져”, “튤립과 벚꽃, 유채꽃 등 다 있어...다르게 갈 필요 없는 종합선물세트” 등 박람회를 극찬하는 평이 즐비하다.

국가정원에 입장한다면 국가정원식물원과 시크릿가든을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린다. 국가정원식물원은 평소 보기 힘든 열대 나무를 비롯해 5백여 종의 식물로 가득 차 있는 데다 15m 아래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의 절경까지. 카메라 셔터가 끊이지 않는 인기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식물원에 연결된 테크를 따라 걷다 보면 시크릿가든을 만날 수 있다. 시크릿가든은 나선형으로 이어진 길에 다채로운 정원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 곳곳이 포토존이다. 이를 감상하며 나선을 따라 맨 아래로 내려오면 비밀 가득한 신비로운 정원을 만날 수 있다.

미디어아트로 연출되는 식물극장, 흑한외기후에서 자라는 식물과 환경을 체험하는 ‘빙하정원’, 첨단 태양광 채광기술을 활용한 ‘햇빛정원’과 같은 독창적인 테마를 선보인다.

순천=김승호 기자

국가정원을 거닐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린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자. 시냇물 소리를 따라가 보면 ‘개울길광장’을 만날 수 있다. 개울길광장은 푸른 사계절잔디광장과 함께 화려한 화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어싱길까지 있어 자연의 요소를 가득 담은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원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각국의 정원을 형상화한 12개의 세계정원, 지자체·기업·작가들이 조성한 12개소의 참여정원 등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정원으로 가득해 ‘정원, 꽃, 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사진을 담아갈 수 있다.

국가정원을 벗어나 도심 한 가운데 자리한 풍덕들 경관정원은 여의도 면적의 1.2배(26ha)의 규모를 형성색색의 튤립과 봄꽃들로 채워 화려한 경관을 뽐낸다. 게다가 경관정원 한편에 마련된 작은 섬터에서는 투명한 유리창 너머 화려한 경관을 하나의 ‘액자’처럼 감상할 수 있어 ‘포토 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자동차만 다니던 회색빛 아스팔트 도로를 푸른 정원으로 바뀌면 ‘그린아일랜드’도 있다. 이곳이 도로였던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등과 가로등, 그리고 남문 쪽에 자리한 커다란 박람회 조형물을 배경으로 삼아 연신 인증사진을 남기는 관람객들로 가득하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지능형교통체계 (ITS) 교통정보센터 개소

광양시는 11일 광양커뮤니티센터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한 안영현 광양시의회 운영위원장, 정재봉 광양경찰서장, 서승호 광양소방서장, 김경석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본부장, 교통봉사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능형교통체계(ITS) 교통정보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는 주요 교차로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화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70억 원의 규모로 추진됐다.

시는 2021년 12월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용역을 착수해 지난 2월 준공했으며, 시험 운영을 거쳐 4월부터 교통정보센터(커뮤니티센터 6층)를 운영한다.

교통정보센터에서는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가공해 일정 기간의 데이터가 축적되면 최적화된 교통신호 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되며, 중앙에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흐름이 유지되도록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양=김현근 기자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지급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